

서호인의 '소설처럼'



불멸의 갈등 -전하영 소설집 '시차와 시대착오'

이제 '세대 차이'라는 말은 옛말처럼 들린다. 대신 요즘에는 '세대 갈등'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다. 차이를 넘으면 화합이 될 줄 알았건만, 차이 다음에는 갈등이 있었던 셈이다. 세대 갈등은 선거철이 되면 더 극명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22대 총선에서 60대 이상 세대는 (호남을 제외하고) 현재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여당은 더 크게 참패했을 것이다. 달리 말해 해당 세대는 정치적으로 다른 세대와 행동했다. 요즘 친구들은 야권할 줄 모른다…… 등등. 반대로 20대가 바라보는 40대는 어땠겠는가? 역시 말을 좀 줄여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지역별로 나누는 투표 성향과 그 전후의 갈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숙제로 여겨졌지만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다. 노년은 장년을, 장년은 청년을, 청년은 노년을 무시한다. 노년은 청년을, 청년은 장년을, 장년은 노년을 멸시한다. 무시와

멸시는 튼튼한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듯하다. 수레바퀴 아래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수레바퀴 아래에는 물론 실재 삶이 있다. 선거 결과와 정치 체계라는 관점에서 노년 또는 청년은 반대파의 일원으로, 추상적 수치의 한 묶음으로, 빨강이면 빨강이고 파랑이면 파랑인 이념의 결사체가 존재할 것이지만 일상에서의 세대는 그저 한 사람으로 존재할 뿐이다. 1번을 찍은 60대 남자가 우리 아파트 단지의 친절한 경비원일 수 있다. 2번을 찍은 30대 여성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는 아버지에겐 안부 문자를 보내는 퇴근길의 직장인일 수 있다.

전하영 소설집 '시차와 시대착오'는 문학이 예술을 서사화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소설 속 인물은 여러 예술 분야의 아티스트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예술이 아닌 그들의 삶이 있다. 예술과 삶의 전후를 살피며 그 순서를 재배치하는 것, 그리하여 '시차'와 '시대착오'를 이야기에 부여하는 것이 전하영 소설의 미덕일 것이다. 한편 소설집의 표제작 '시차와 시대착오'에는 예술을 지향하는 삶 중에, 가족이라는 시스템에서 불멸하고자 세대 갈등 혹은 차이를 그리다. '이명식'은 영동포에 자기 소유의 상가 건물(그녀가 공실이 많음)이 있는 중산층 노년이지만 하나뿐인 딸 '이미루'를 떠올리면 한숨부터 나온다. 그는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며, 앞을 보고 열심히 사는 삶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긴다. 딸 이미루는 다르다. 이미루는 예술 분야 석사 학위가 있고 삼청동 갤러리에서 일하며 노원구 아파트에서 혼자 사니, 고양아와 산다. 둘에게는 암연한 시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둘에게는 공히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다.

둘은 서로를 이해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소설은 둘의 이야기에 특별한 접점을 두지 않고 진행되는데 특히 이미루의 일상에 이명식은 투입하지 못한다. 이미루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더 나아가지 못한 예술가로서 삶, 자존감이 떨어진 채 만나는 옛 연인이 더 중한 문제이다. 이명식은 몇 달째 공실인 채로 방치된 상가와 결혼할 생각은 없애 버리고 유랑하듯 사는 딸이 문제이다.

둘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인가? 둘은 같은 시대에서 어떤 착오로 다른 시대를 꿈꾸는 걸까? 소설은 마지막 장면에 와서 약간의 틈을 보여준다. 악성 사기에 휘말릴 뻔한 아버지를 돕는 딸, 딸에게 위안을 느끼며 이제야 조금 기뻐 마음을 갖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독자는 세대의 시차를 극복하고, 착오를 인정하며 아름다운 화해에 이르는 모습을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고, 소설은 현실을 배반하지 않는 편을 택한다. 시차와 시대착오는 불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

의료칼럼

로봇수술



노준화 광주기독교병원 비뇨의학과 진료과장

수술은 최첨단 로봇 수술 시스템과 결합해 수술의 정밀성과 안전성이 한 단계 더 향상됐다. 로봇 수술은 기존 복강경 수술에 비해 월등히 선명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의사의 손과 손목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하고 손 떨림을 보정할 수 있어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서는 할 수 없었거나 하기 힘든 동작도 아주 쉽게 가능해졌다.

'로봇'이라는 용어 때문에 종종 의사가 아닌 로봇이 직접 수술을 실시한다고 오해하곤 하는데, 로봇 수술은 의사가 콘솔(Console)을 통해 환자의 인체 내 삽입된 로봇 팔(수술기구)을 원격에서 조종해 수술하는 방법이다. 환자 옆에는 의사가 아닌 로봇이 서 있으며 의사는 환자와 떨어진 곳에서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기계에 앉아 3차원으로 제공되는 영상을 보면서 원하는 대로 로봇 팔을 움직이며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다.

수술을 담당하는 로봇은 여러 안전장치가 있어 수술 중 환자에게 해가 되는 동작을 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돼 있다. 환자 옆에는 조수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 시술자가 조종하는 로봇을 돕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로봇을 통해 시술자는 더욱 확대된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로봇 수술은 매우 좁은 공간에서 정교한 수술을 필요로 하는 방광 및 전립선 수술과 부인과 수술

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엔 그 영역이 점차 확대돼 복강 내 위암, 대장암 수술에도 적용되고 있고 간담도계, 갑상선 수술 등에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최신 로봇 수술이라 할지라도 한계와 단점 역시 존재한다. 로봇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 수술은 집도하는 의사의 의에 이루어지므로 집도 의사의 역량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로봇은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촉각의 전달은 미흡하기 때문에 집도 의사는 수술 중 직접 만져서 느낄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없다. 또 한정된 수술 공간에 로봇 팔 여러개를 장착해야 하므로 수술 중 옆에 있는 로봇 팔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도 의사는 로봇 수술 경험뿐만 아니라 개복 수술 및 복강경 수술 경험과 이해를 갖춰야 비로소 로봇 수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로봇 수술의 집도의사는 환자 옆이 아닌 멀리 떨어진 로봇 콘솔에 앉아 수술을 진행하므로 보조의사와 간호사가 필수적이며 집도 의사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량도 보다 중요해졌다. 로봇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집도 의사에게 전달하고 집도 의사를 대신해 수술에 참여해야 하므로 집도 의사와 함께 수술을 위한 팀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고

공원과 나의 삶, 그리고 도시의 미래



김재중 광주시 도시공원과장

구분돼 있다. 대표 공원으로 서울숲(공공공원), 청년숲, 치유숲(도시형 캠프장), 가족숲(빛물체험원), 풍암호수(호수, 수변테크, 전망대, 호수백사장, 물놀이마당)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앙공원이 현 계획대로만 조성된다면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10년 후, 100년 후에도 미래 세대에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표 녹지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따위를 위해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시설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도시공원은 2024년 현재 643개소에 1894만 6000㎡에 이르고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원 조성이 완료돼 중점 관리되고 있는 공원은 443개소다.

광주시가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공원은 24개소로 직접 5000여억원을 들여 재정공원 15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시는 또 나머지 9개 공원(10개 사업지) 713만3000㎡ 부지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라 민간자본 1조 5455억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인 재정-민간공원 24개소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면적만 909만

3000㎡로, 광주시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48%를 차지하게 된다. 이같은 대규모 도심 공원 조성 사업은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삶까지도 윤택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선언한 광주시는 현재 훼손된 녹지 복원, 습지보호지역 지정, 도시숲 총량제 도입, 그린 스트리트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 바람길 숲 등 생활권 숲 조성 확대, 신규조립 조성, 흡수원 복원 등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매년 공원녹지 등을 확충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같은 노력은 도시의 쾌적성 증진과 휴식 및 안락, 심리적 안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요즘 '공원과 주거, 업무 그리고 쉼집 문화가 있는 'Compact-City'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도심 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기존처럼 도심에 건물을 배치한 뒤 남은 공간을 녹지로 채우는 방식이 아닌, 도심 공원 등 녹지공간을 먼저 배치한 뒤 녹지에 어울리는 건물을 건축해 주거-업무-문화-여가-녹지가 공존하는 Compact-City(도시 속의 도시)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광주시가 대규모 공원 조성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다. 광주 도심 속 643개소의 공원과 주거, 업무시설(일자리), 그리고 생활에 밀접한 놀이-문화가 인근에서 모두 이뤄지는 'Compact-City'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어느 곳에서 살아도 공원 속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녹색 도시 광주를 상상해 본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는 백백한 빌딩 숲 한 가운데 뉴욕 요커의 쉼터 센트럴파크가 있다. 1857년 조성된 센트럴파크는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는 습지였고 무허가 채석장과 기숙을 기르는 농장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뉴욕의 도시설계 중 빠른 도시화와 치열한 삶의 타전이 아닌 녹색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센트럴파크 설계자는 "지금 이 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선병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에서 자연으로 최단시간 탈출'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던 프레드릭 로 울스테드에 의해 오늘날까지도 뉴욕의 휴식처인 뉴욕 센트럴파크가 탄생한 것이다.

광주 도심에도 광주시민을 위한 중앙공원이 있다. 광주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도심 속의 자연, 힐링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원이자,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난개발 위기로 내몰렸던 중앙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풍암산권역, 체육공원권역, 좌봉산권역으로

社說

열악한 정주여건에 떠나는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인구가 장기간 정체 속에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 교육, 교통 인프라, 여가시설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인데 계획 인구의 80%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빛가람혁신도시는 2030년 계획 인구 5만여명(4만9499명)의 신도시로 조성됐지만 현재 인구는 3만9965명으로 목표치의 80.7%에 불과하다. 부산과 전북 혁신도시가 2022년 이미 목표 인구를 초과 달성했고 울산과 제주 혁신도시도 목표 인구의 95%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빛가람혁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더딘 편이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인구는 2021년 3만9221명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4만명을 넘지 못한채 정체돼 있다.

인구 유입 요인이 있는 신학기인데도 이달 들어서는 오히려 전월대비 18명이 줄어 인구 상향선에 다다른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전을 비롯한 16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이주계획을 초

과 달성(103.5%)했고 가족 동반 비율도 73.8%나 돼 공공기관 외 인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없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조성 초기부터 열악한 정주여건이 지적돼 왔다. 혁신도시와 광주를 오가는 버스노선이 4개에 불과한 데 가운테 나주시가 운영하는 3개 노선의 배차 간격이 35-45분인 것이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 여건이다. 유치원은 혁신도시 학생 인구의 절반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두 곳의 고교 정원도 거주 학생의 72%에 그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를 인구 5만의 명품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말이 공언이 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인 만큼 나주시는 물론 전남도와 광주시가 정주여건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혁신도시 내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광주와의 연계 교통망 확충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마약 제벌 느는데 손 놓은 재활 치료 어찌나

광주에서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나 지자체 모두 제벌 예방을 위한 재활치료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조지원사업'은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충 지원 의뢰기관을 정하고 임원료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광주에는 광주시립정신병원에 병상 5개만을 지정해 준 것이 전부이고 올해 예산도 400만 원에 그칠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 이 용자는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3년 1명뿐이었으며 올해는 1명이 이용 의사를 밝혔을 뿐 이용자는 없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역시 매년 수백 명씩 마약 사범이 검거되는 데 비해 이용이 저조하다. 마퇴본부 광주전남지부 마약 중독 관련 상담은 2021

년 130여 회, 2022년 180여 회, 2023년 200여 회 이뤄졌고 재활프로그램 이용자 수도 2021년 70여 명, 2022년 80여 명, 2023년 100여 명에 불과했다.

마약 제벌률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재활 치료 이용자가 적은 것은 치료를 받으려면 결국 중독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중독자라는 걸 알리기 꺼리고 개인정보도 제시해야 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외에도 보호관찰소 뿐 아니라 중독재활치료센터 등 체계적인 재활치료에 손을 놓고 있는 관계기관의 잘못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터넷에 퍼진 마약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마약 이용률이 늘고 제벌률도 급증하고 있다. 마약 사범을 단순히 체포 및 처벌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제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치료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無等鼓

하이러키(hierarchy, 위계)라는 말은 그리스어 하이러키아(hierarkhia, 성자의 지배)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가톨릭과 봉건제의 근간이 되었는데, 교황을 최상위로 그 아래 주교-사제-부제, 국왕을 최상위로 그 밑으로 영주-기사-평민-하인 등을 두었다. 유럽에서는 이 계급제가 1000년 이상 유지됐다.

근대 자본주의에 의한 거대한 기업 조직, 한층 복잡해진 국가 행정을 위한 대규모 관료 조직이 들어서면서 직무를 등급을 구성하고 책임자를

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단체장, 의원은 모두 선출직이며 과거 권위주의 체제와는 달리 권력과 봉건제의 근간이 되었는데, 교황을 최상위로 그 아래 주교-사제-부제, 국왕을 최상위로 그 밑으로 영주-기사-평민-하인 등을 두었다. 유럽에서는 이 계급제가 1000년 이상 유지됐다.

근대 자본주의에 의한 거대한 기업 조직, 한층 복잡해진 국가 행정을 위한 대규모 관료 조직이 들어서면서 직무를 등급을 구성하고 책임자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남도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수천만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립정신병원에 병상 5개만을 지정해 준 것이 전부이고 올해 예산도 400만 원에 그칠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 이 용자는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3년 1명뿐이었으며 올해는 1명이 이용 의사를 밝혔을 뿐 이용자는 없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역시 매년 수백 명씩 마약 사범이 검거되는 데 비해 이용이 저조하다. 마퇴본부 광주전남지부 마약 중독 관련 상담은 2021

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단체장, 의원은 모두 선출직이며 과거 권위주의 체제와는 달리 권력과 봉건제의 근간이 되었는데, 교황을 최상위로 그 아래 주교-사제-부제, 국왕을 최상위로 그 밑으로 영주-기사-평민-하인 등을 두었다. 유럽에서는 이 계급제가 1000년 이상 유지됐다.

근대 자본주의에 의한 거대한 기업 조직, 한층 복잡해진 국가 행정을 위한 대규모 관료 조직이 들어서면서 직무를 등급을 구성하고 책임자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남도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수천만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립정신병원에 병상 5개만을 지정해 준 것이 전부이고 올해 예산도 400만 원에 그칠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 이 용자는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3년 1명뿐이었으며 올해는 1명이 이용 의사를 밝혔을 뿐 이용자는 없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역시 매년 수백 명씩 마약 사범이 검거되는 데 비해 이용이 저조하다. 마퇴본부 광주전남지부 마약 중독 관련 상담은 2021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